통합유럽연구 제14권 3집
DOI https://doi.org/10.32625/KJEI.2023.31.199

마크롱의 드골주의 노선 추구와 대서양동맹의 갈등

이 승 근*

〈국문초록〉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신생 정당으로 'En Marche'를 대표하는 마크롱이 프랑스 국민들의 인기를 끌면서 2017년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이후 경제적으로 우파적인 정책을 추구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좌파적 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복지 분야 등에 관심을 쏟았다. 대외정책수행에 있어서 그는 프랑스 제5공화국을 열었던 드골 대통령의 이념적 계승자임을 자처하며 프랑스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해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대외정책수행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대서양동맹의 균열을 십분 활용하고, 그와의 대립을 통해 유럽인 중심의 '신유럽질서'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 이후 유럽에서 프랑스의 지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적으로 프랑스 우파 이념의 중심에 있는 드골주의 노선을 추구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은 유럽질서의 변동 과정에서 드골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프랑스의 위상 강화와 유럽인에 의한 유럽건설, EU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통합의 심화와 전략적 자율성 강화, NATO보다는 EU의 안보 주도권 확보 등이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대외정책에 상당 부분 드골주의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국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유럽정책을 추구하였으며, EU를 통해서도 이러한 드골주의적인 접근을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프랑스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EU가 외교, 안보 및 방위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주제어: 마크롱, 브렉시트, 프랑스, 대서양동맹, 전략적 자율성, 유럽연합, 나토, 드골주의

차 례

Ⅰ. 서론
Ⅱ. 프랑스 중도정당의 탄생과 마크롱의 집권
1. 마크롱의 집권과 프랑스 정치의 실험
2. 드골의 이념적 계승자로서 마크롱
Ⅲ.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마크롱의 드골주의 노선 추구
Ⅳ. 마크롱과 대서양동맹의 갈등
1. 트럼프와 마크롱의 대립
2. 마크롱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
3. 대서양동맹의 갈등
Ⅴ. 결론

Ⅰ. 서론

드골(Charles De Gaulle)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위상이 약해진 프랑스를 재건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1958년 6월 총리로 선출된 후 동년 9월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고 1959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그는 대통령 취임 후 프랑스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유럽 강대국으로서 프랑스가 제3공화국 초기 시절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드골의 노력은 프랑스 정부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드골주의 즉, '골리즘'(Gaullism)으로 나타나게 된다. 골리즘은 드골 대통령이 재임 시절 추구한 외교정책 이념으로 '국가'(nation)와 '국력'(puissance)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프랑스 대외정책의 근간이 되었고, 이후 역대 정권에서 정치노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에서만큼은 드골주의 노선을 끊임없이 유지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드골주의를 근간으로 자국의 '위대성'(grandeur)을 회복하고,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독립'(indépendance)을 확

보하며, 자국의 '국력'(puissance)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겠다.

골리즘의 형성과 유럽질서 변동 과정을 각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드골대통령 집권과 골리즘의 형성기, 드골주의자인 뽕삐두(Georges Pompidou) 대통령과 좌파 드골주의자로서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 집권 시기, 신골리스트(Neo Gaullist)로 불리는 시락(Jacques Chirac) 대통령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 그리고 '드골의 이념적 계승자'임을 내세우고 있는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 시기 등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집권 후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마크롱 대통령 시기에 골리즘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된다.

2012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사회당의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 집권기에는 골리즘이 뚜렷하게 눈에 띌 정도로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7년에 집권한 마크롱은 중도당 '앙 마르슈!'(En Marche!)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지만 이념적으로는 프랑스 우파에서 주도하고 있는 드골주의자임을 자처하며 프랑스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하게 된다. 그의 행보를 보면 미국과의 대립을 통해 '신유럽질서'를 예견케 하였고,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이후 유럽에서 프랑스의 입지를 강화하는 등 프랑스의 대외정책에서 드골주의 노선을 이어 왔다. 이렇듯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유럽에서 대서양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질서의 변동 과정에서 드골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럽인에 의한 유럽 건설, EU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통합의 심화, NATO보다는 EU의 안보 주도권 확보 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다.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골리즘에 입각한 유럽안보전략 하에 대서양동맹을 축으로 하는 안전보장보다는 EU의 발전을 통하여 안보 영역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해 왔다. 이와는 달리 영국은 대서양주의 국가로 같은 앵글로-색슨(Anglo-Saxon) 국가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EU보다는 NATO 중심의 유럽 안보·방위 협력을 선호하고, 영국의 브

렉시트 결정 이후 EU와 결별하게 된 상황에서 NATO와 더욱 가까워졌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NATO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하여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 미국을 제외한 유럽군 창설을 제안하는 등 골리즘에 입각한 유럽 건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향후 프랑스의 행보가 매우 주목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동안 유럽 질서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드골주의에 기반을 둔 프랑스의 대외정책을 시기별로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이념이 유럽 질서의 변동 가운데 어떻게 적용됐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마크롱 대통령 집권기를 중심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프랑스 중도정당의 탄생과 마크롱의 집권으로 인해 프랑스의 정치적 실험이 시작되었음을 분석하고, 드골의 이념적 계승자로서의 마크롱 대통령의 대외 인식을 분석하게 된다. 둘째,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유럽 내에서 달라진 프랑스의 위상을 분석하고 이를 위해 마크롱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보를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마크롱 대통령과 대서양동맹의 갈등을 다루게 되는데 트럼프와 마크롱의 대립, 마크롱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 문제와 이 시기에 대서양동맹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본 논문을 통해 드골주의에 기반한 마크롱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럽질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프랑스 중도정당의 탄생과 마크롱의 집권

1. 마크롱의 집권과 프랑스 정치의 실험

마크롱의 정치적 여정을 살펴보면 우선 그는 전형적인 프랑스 정치 엘리트로서 파리 앙리 7세 고등학교(Lycée Henri-IV)와 파리정치대학(Science

Po), 국립행정학교(ENA: É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를 졸업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프랑스 사회당(Parti socialiste)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초기에는 좌파 노선을 따랐음에 따라 사회당이 집권한 시기인 2012년 5월부터 올랑드 대통령의 대통령실 부실장으로 2014년 7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이내 그는 2014년 8월부터 경제산업디지털 장관으로 2016년 8월까지 만 2년간 장관직을 역임하면서 사회당 집권 하에서 친기업적인 우파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프랑스 국민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각인시켰다.

이러한 시기를 그치면서 마크롱은 1958년부터 지속된 프랑스 5공화국 하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우파와 좌파의 집권을 경험한 가운데 우파와 좌파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이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는 가운데 그는 스스로를 '좌파도 우파도 아닌'(ni de droite ni de gauche) '자유주의자'(libéral)로 규정하며 사회당과 결별을 하고 중도파이자 친 유럽주의 신당으로서 '앙 마르슈!'를 2016년 4월에 창당하게 된다.[1] 이후 2016년 8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얼마 동안 숙고를 한 뒤 2016년 11월 공식적으로 프랑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게 된다.

당시 사회당 출신의 올랑드 대통령은 2016년 11월 4%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프랑스 제5공화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간파한 마크롱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전개하면서 프랑스가 둘러싸인 벽돌을 깨야 하고 민주주의적 혁명을 개시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인기가 바닥에 떨어진 사회당과의 차별화를 꾀하였다.[2] 물론 실제로는 사회당 내의 주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지기반까지 대거 '앙 마르슈!' 당으로 끌어들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 및 중도 보수적인 유권자층으로

1) Le Lab Europe 1, "Finalement, le parti d'Emmanuel Macron est "et de droite, et de gauche" (mais surtout progressiste)," April 21, 2016, https://web.archive.org/web/20160424111150/http://lelab.europe1.fr/emmanuel-macron-refuse-detre-loblige-de-francois-hollande-2726290 (검색일: 2023. 3. 1).

2) BBC, "France's Macron joins presidential race to 'unblock France'," November 16, 2016,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37994372 (검색일: 2023. 3. 3).

까지 그 기반을 확장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대선 전략의 추구 결과 그는 2017년 5월 2차 결선 투표에서 극우당인 '국민전선'(FN: Front National)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을 66.1%대 33.90%로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39살에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자신의 정치노선에 열광하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

마크롱은 자신의 장관 재임 시절 자유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을 평소에 밝히는 등 우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의 일환으로 그는 프랑스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촉진을 위해 대규모의 개혁 패키지로서 일명 '마크롱 법'(Macron Law)을 2015년 5월 통과시킨 바 있었다. 당시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에 힘입어 5년 내로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이 0.3% 향상되고 10년 내로는 0.4%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정치권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3] 마크롱 자신은 좌파 정부에서 우 클릭을 주도한 장관이라는 이유로 극렬한 비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2015년 8월 자신이 더 이상 사회당 당원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행동을 할 것임을 밝혔고, 이후 신당을 창당하면서 좌파와 우파도 아닌 중도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이다. 이후 그는 많은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되었는데, 대통령 선거 당시 2차 결선 투표에서 르펜을 두 배의 표 차이로 이기는 가운데 프랑스 건국 이래 역사상 가장 젊은 최연소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프랑스 국민들이 신생 중도정당인 '앙 마르슈!'를 지지하면서 마크롱을 역대 최연소 대통령으로 전격적으로 선출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프랑스 국민들이 과거 좌파와 우파에서 집권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프랑스의 국내 정치에서 어떠한 신선한 정책들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프랑스 국민들이 국내에서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됨에 따라 향후 프랑스 정치에

3) Marie Visot, "La Loi Macron ne devrait créer que peu de croissance," https://www.lefigaro.fr/conjoncture/2015/09/18/20002-20150918ARTFIG00250-la-loi-macronne-devrait-creer-que-peu-de-croissance.php (검색일: 2023. 2. 10).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둘째, 특히 대외정책 부분에서는 유럽 및 세계질서에서 프랑스의 대외적인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프랑스 정치의 새로운 실험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크롱은 집권 후 경제적으로는 우파적인 정책을 추구하여 프랑스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고, 사회적으로는 국내에서 좌파적인 정책 확대로 복지와 불평등 해소, 국민들의 기회 진작 등에 대한 관심을 쏟았다.[4] 이렇듯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를 이끄는데 실용적인 면을 보여주는 가운데 대외정책에서는 프랑스 5공화국 초기에 드골 대통령이 그랬듯이 그 또한 강력한 프랑스국가를 세워 나가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시킬 것인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점을 잘 알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대외정책수행에 있어 드골주의 계승자임을 자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가 수월할 수 있었는데, 그가 드골주의를 기반으로 프랑스의 강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 주는 정책을 펼치게 될 것임이 충분히 예견되었다.

2. 드골의 이념적 계승자로서 마크롱

프랑스 대외정책에 대한 골리즘의 적용은 1969년 드골 대통령의 하야 후에도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집권당의 이념을 떠나서 2017년에 집권한 마크롱 대통령 시기까지 지속되어 왔다. 마크롱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대통령을 내게 된 중도성향의 정당인 '앙 마르슈!'를 대표하지만 그는 이념적

4)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후 지지율이 취임 100일여 만에 62%에서 36%로 급락하는 등 취임 초와는 달리 인기가 추락함으로써 프랑스 국민들이 새로운 신생당에 기대를 하며 시작된 정치적 실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정치적인 경륜이 짧은 상태에서 중도파의 특징으로 명확하지 않은 노선에 따라 다양한 개혁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이에 대해 각 계층별 저항감이 거셌다는 점과 2018년 11월의 노란조끼 시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초까지 유래 없는 총파업, 코로나-19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202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성향의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Politico, "The other loser in the French elections," https://www.politico.com/news/2020/06/30/france-marine-le-pen-macron-346480 (검색일: 2023. 4. 5).

으로 드골주의를 계승하고 있음을 자처하며 대선 유세 때부터 이를 강조해 왔다. 결국, 마크롱은 대선 과정에서 좌파를 포함하여 중도성향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드골을 지지하는 우파 성향의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됨으로써 상당한 인기를 누리며 2차 결선 투표에서 반대파의 르펜을 압도적인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마크롱은 프랑스 대선 유세 당시 다른 어떤 대통령 후보들보다 드골의 이름을 더 자주 인용했다. Duclos에 의하면 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프랑스의 외교 노선과 관련하여 '골로-미테랑주의'(Gaullo-Mitterrandism) 접근 방식을 철저히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골로-미테랑주의는 정파 간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프랑스 대외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만큼은 드골주의를 계승하였던 좌파 미테랑 대통령의 통치이념을 따르자는 정치 철학이다. 일련의 프랑스 학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후 '골로-미테랑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프랑스를 유럽에서 강대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내 비침으로써 자신이 드골의 이념적 계승자임을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보여 주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6]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후 자신의 집무실에 드골의 초상화를 걸어 놓고 있다는 것을 자주 언론에 공개하면서 의식적으로 드골주의를 따르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특히 마크롱은 대통령 당선 직후 6월 21일 8개 유럽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함께 사르코지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프랑스에서 1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개입주의'를 기반으로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정치노선은 종말을 고하였다고 강조하였고, 자신은 드골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충실히 따르는 가운데 프랑스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대외정책을 펼치겠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7] 더 나아가 마크롱 대통령은 드골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내에 퍼져있는 포퓰리즘과 비자유주의적인 세력을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프랑스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밝혔는데, 이러한

5) Michel Duclos, "Gaullo-Mitterrandisme contre néo-conservateurs à la française–un vrai-faux débat?" *Institut Montaigne*, August 3, 2017 (2017).

6) *Ibid.*

7) *Ibid.*

입장은 자신의 집권 초기부터 프랑스의 대유럽 및 대외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투영되었다.[8]

결국,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이후 행보를 보면 미국과의 대립을 통해 신유럽질서를 예견케 하였고,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이전 보다 강화된 프랑스의 입지를 구축하는 등 전형적으로 골리즘에 기반을 둔 정책을 써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프랑스의 위상 확대와 유럽인에 의한 유럽 건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마크롱이 권위주의적이라면서 제우스에 빗대서 비판하는 여론이 생기게 된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9]

냉전 종식 이후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온 NATO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에서 EU의 독자적 군사력 강화 노력과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추구가 지속되어 왔다.[10] 특히 프랑스의 경우 골리즘에 입각한 유럽안보전략 하에 전통적으로 대서양동맹을 축으로 하는 유럽 안전보장보다는 EU의 발전을 통하여 안보 영역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반면에 영국은 자국과 동일한 앵글로-색슨 계열 국가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순수 유럽인 중심의 EU보다는 NATO 중심의 유럽 안보·방위 협력을 선호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결정 이후 최종적으로 2020년 1월 31일부로 EU와 결별한 영국이 NATO와 더욱 가까워졌고, 미국 또한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에 따른 대서양동맹의 균열과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대한 NATO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함으로써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 유럽 안보질서의 변화 유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드골주의의 이념적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마

8)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5공화국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Arthur Berdah, *Emmanuel Macron, Vérités et légendes* (PERRIN, 2022), pp.51-57 참조.

9) Duclos, "Gaullo-Mitterrandisme contre néo-conservateurs à la française–un vrai-faux débat?"

10) European Parliament, "EU strategic autonomy 2013-2023: From concept to capacity," Briefing, *EU Strategic Autonomy Monitor July 2022*,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BRI(2022)733589 (검색일: 2023. 4.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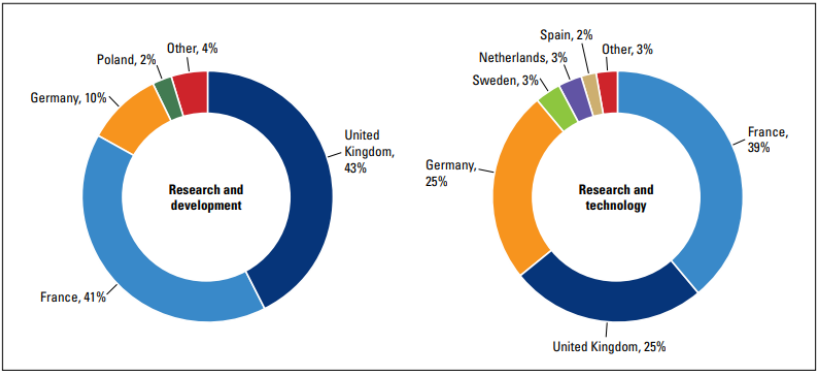
크롱이 2017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과의 마찰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그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NATO의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로 인해 미국과 유럽국가들 간 갈등이 지속되자 2018년 11월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제외된 '유럽군'(European Army) 창설을 제안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고, 그가 골리즘에 입각한 유럽건설과 유럽에서의 프랑스의 위상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대서양동맹의 미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Ⅲ.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마크롱의 드골주의 노선 추구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EU는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변화를 단행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영국은 유럽-미국 대서양 관계에 있어 핵심 국가이며, 해외네트워크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EU의 정치적 위상에 크게 기여 해 왔음에 따라 브렉시트 이후 전체 EU 회원국들의 상당한 군사 전력 손실이 예상 되어왔다. 영국이 EU 회원국 중 핵 잠수함 전력의 50%, 공중 조기경보기의 44%, 전자정보 수집기의 38% 차지하면서, 첨단 군 전력에 있어 EU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11] 이와 더불어 영국이 2015년 기준으로 EU 유럽방위청(EDA: European Defence Agency) 참여 국가들 중 연구와 개발(R&D) 부분에서 43%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였고, 연구와 기술(R&T) 부분에서는 25%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이 또한 비중이 꽤 높다는 점이다([그림-1] 참조).

11) Bastian Giegerich and Christian Molling, "The United Kingdom's contribution to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IISS & DGAP* (February 2018), p.7.

[그림-1] EU 유럽방위청(EDA) 지출 비용 중 영국의 비중(2015년 기준)



출처: Giegerich and Molling, "The United Kingdom's contribution to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12.

이처럼 영국이 EU 내에서의 역할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브렉시트는 EU에 큰 도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올랑드 대통령 집권 하의 프랑스 정부는 독일과 더불어 2016년 6월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유럽안보협정'(European Security Compact)을 제안하고 EU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의 군사 분야 협력을 시사하는 한편 EU의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12] 더 나아가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유럽의 안보와 관련하여 유럽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된다.[13] 그는 특히 동년 9월 26일 소르본느대학교에서 있은 연설 등을 통하여[14]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는데, 민족주의, 정체성주의(identitarianism), 보호주의, 고립주의적 주권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유럽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하게 어필

12) 전혜원, 「영국의 EU 탈퇴와 유럽안보의 과제」, 『정책연구시리즈』, 2018-1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16쪽.

13) Michel Duclos, "Tracing French Diplomacy: A Brief History of Macron's Foreign Policy," *Institut Montaigne*, October 12, 2021 (2021).

14) European Parliament, "EU strategic autonomy 2013-2023: From concept to capacity," p.2.

하였다.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가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통상 및 안보 분야에서 관계를 재설정하는데 필요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브렉시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다.[15]

아이러니컬하게도 마크롱은 취임 후 영국에 대한 드골의 적대감을 곧바로 재현하게 된 셈이다. 드골 대통령은 집권 당시 여러 차례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영국을 유럽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게 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 또한 2020년 12월 31일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할 때까지 냉철하게 EU 내에서 영국과의 분리 정책을 지속하였다. 특히 그는 EU의 역할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가운데, 취임 이후 영국의 브렉시트가 유럽연합 회원국을 분열시킬 수 있는 위협으로 평가하고 EU 기구들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해 왔다.[16] 이에 더하여 EU 내에서 영국의 EU 탈퇴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도록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의 탈퇴로 EU의 외교안보적 역량 감소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EU 내에서 영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EU가 2017년 12월 '상설안보방위협력체'(PESCO: the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on Security and Defence)를 출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나섰고, 2018년 7월 2021~27년 EU예산으로 유럽방위기금(EDF, European Defense Fund) 항목 신설에도 적극적이었다. 2019년 1월에는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과 함께 상호 양국의 기존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는 성격을 띄고 있는 '아헨 조약'(Treaty of Aachen)[17]을 체결하게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

15) Bu Hilary Clarke, "Macron sets out grand plan to relaunch 'weak and slow' European Union," *CNN*, September 26, 2017, https://edition.cnn.com/2017/09/26/europe/macron-european-union-sorbonne-speech/index.html (검색일: 2023. 02. 17).

16) Pauline Schapper, "La politique européene de la France et le Brexit(2017-2019)," Georges-Henri Soutou, *L'action extérieure de la France(Sous la direction de)* (Puf, 2020), pp.195-196; Isabelle Lasserre, *Macron, le Disrupteur: la politique étrangère d'un président antisystème* (Edition de l'Oservatoire, 2022), pp.226-227.

17)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Etrangère, "Franco-German Treaty of Aachen," https://www.diplomatie.gouv.fr/en/country-files/germany/france-and-germany/franco-

헨 조약을 통하여 유럽안보질서 유지를 위해 EU 내에서 양국이 영국의 자리를 메우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됨으로써 유럽에서 프랑스의 위상 강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유럽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바탕 '대서양주의'(Atlanticism) 국가 대 '유럽주의'(Europeanism) 국가 간 대립에 대한 연구가 90년대에 많이 진행되었는데,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마크롱 대통령 집권 하의 프랑스와 영국 간 갈등에 대한 연구가 유효해 졌다.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유럽안보를 유럽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유럽주의'국가와 미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NATO가 주도해야 한다는 '대서양주의'국가 간의 대립이 있어 왔다. 프랑스는 '유럽주의'국가로서 드골주의에 입각하여 '대서양동맹'을 축으로 하는 유럽안전보장보다는 EU가 안보 영역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왔다. EU 내에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수립을 위한 프랑스의 노력은 미국으로부터 유럽 국가들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서 EU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NATO가 아니라 EU를 통해서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18] 영국은 '대서양주의'국가로서 같은 문화권이자 해양세력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NATO 중심의 유럽 안보·방위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영국은 EU 차원의 군사협력 확대에 일정부분 지지하였으나 NATO가 유럽안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EU의 군사 분야 협력을 억제하는 역할도 했다.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과 후속으로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의 수립과정에서도 영국의 입장이 여실히 드러났다.[19]

---

german-treaty-of-aachen/ (검색일: 2020. 5. 4).

18) 이승근, 「프랑스의 대 EU 안보정책에 대한 고찰: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수립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8집 (2004), 415쪽; André Dumoulin, Raphaël Mathieu et Gordon Sarlet, *La politique européenne de sécurité et de défense(PESD): De l'opératoire à l'identitaire* (Bruylant, 2003), p.63.

19) 전혜원, 「영국의 EU 탈퇴와 유럽 안보의 과제」, 5쪽; 황영주·손무정, 「국제주의와 대서양주의의 조화 또는 갈등: 영국 노동당정부의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에 대한 접근(1998~2003)」, 『국제정치연구』, 제9집 1호 (2006), 29쪽.

이렇듯 유럽안보질서유지를 위해 양국 입장이 사뭇 다른 가운데 브렉시트를 통해 EU 내 협력적 공간으로부터 영국이 나오게 됨으로써 유럽주의 국가들의 입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외정책에 있어서 골리즘의 이념적 계승자로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이어 2022년 5월 대통령으로 재선됨에 따라 EU 내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주의'국가의 입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Ⅳ. 마크롱과 대서양동맹의 갈등

1. 트럼프와 마크롱의 대립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17년 5월부터 집무가 시작되기 전 부터 국제질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즉, 2017년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정책과 신고립주의 정책 실시에 따른 대결 국면의 국제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유럽의 안보질서의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2017년 12월 18일에 발표된 미국의 신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지명함으로 인해 이들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또한 갈등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 예고되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 세계 경제의 최대 이슈인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의 확대 등에 따라 유럽의 대응이 주목 되었는바 이 시기에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과 그의 드골주의 노선 추구에 따라 미국과 프랑스 간 관계 또한 대결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기조로 인해 유럽동맹국들과의 마찰이 예견되었다. 그가 유럽의 안보라는 '가치'(values)를 위해 수립된 NATO를 국익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방위비 분담 문제에 집중함에 따라 대서양 동맹의 균열로 이어

지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드골주의 외교정책을 따르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균열을 역이용하여 유럽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NATO의 방위비 분담관련 내용은 1949년에 제정된 북대서양 조약 제3조(“체결국들은 개별 또는 집단 적인 무력 공격에 대항할 전력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발전시킨다.)에 근거하고 있다. 냉전시기에는 구소련의 위협으로 인해 방위비 분담문제가 주요갈등 요소가 되지 않았고 회원국들은 GDP 대비 3% 이상을 지출하였다. 하지만 냉전종식 이후 유럽 동맹국들이 GDP 대비 2% 이하로 방위비 지출을 줄임에 따라 미국-유럽 동맹국들 간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20] 이에 대해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시절 게이츠(Robert Gates) 미 국무장관이 2011년 6월 10일 언론보도를 통해 유럽 국가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청하고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NATO 방위비 예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21] 이러한 갈등 가운데 NATO 회원국들은 2014년 9월 웨일즈 NATO 정상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해당하는 국방비 편성을 2024년까지 끌어올리도록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는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미리 예견된 바 있었다.[22]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가운데 2% 가이드라인을 2018년까지 달성한 국가는 30개 회원국 중 9개국에 지나지 않고, 2%를 준수한 나라는 주요 3개국 가운데 영국이 2.15%로 유일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1.82%, 독일 정부는 1.23%에 거쳤다.[23] 한편, 2019년 이전까지 NATO 동

---

20) 이수형, 「트럼프시대 나토의 위기와 유럽연합과의 갈등관계 분석」, 『INSS 전략보고』, 75호 (2020), 3-4쪽.

21) Washington Post, “The Security and Defense Agenda (As delivered by Secretary of Defense Robert Gates)," Brussels, Belgium, June 10, 2011,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the-security-and-defense-agenda-as-delivered-by-secretary-of-defense-robert-gates-brussels-belgium-june-10-2011/2011/06/10/AGqlZhOH_story.html (검색일: 2020. 7. 5).

22) 이수형, 「트럼프시대 나토의 위기와 유럽연합과의 갈등관계 분석」, 4쪽.

23) NATO, "Defense Expenditure of NATO Countries(2011-2018)," Press Release,

맹국의 GDP 비중의 경우 미국이 52%, 독일 10%,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7%를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 대 유럽/캐나다 비중은 52% 대 48%로 비슷하였다. 반면에 NATO 동맹국의 국방예산 비중의 경우 미국 대 유럽/캐나다 비중은 70% 대 30%로 미국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개별국가 단위로 미국은 70%나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영국은 6%, 프랑스와 더불어 독일은 5%에 거치고 있었다.[24] 이러한 측면에서 Cordesman 등 일련의 미국학자들은 트럼프행정부로부터 유럽동맹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청이 당연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25]

트럼프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2월 2025년까지 국방비로 3,000억 유로(약 400조원)를 투입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이를 통해 국방예산을 GDP의 20%까지 증액하고 군 인력을 6,000명 증원하며, 특히 핵무기 현대화에 370억 유로를 투입하는 한편 항공모함 '샤를드골호'를 대체할 항공모함을 개발할 계획임을 천명했다.[26]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마크롱 대통령은 오히려 프랑스의 국방력 확충의 기회로 삼아 유럽에서 프랑스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었다. 겉으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청에 응답한 것 같지만 오히려 유럽에서의 프랑스의 위상강화를 도와주게 된 결과가 초래하게 된 것이다.

연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동년 8월 27일 엘리제궁에서 있은 해외주재 프랑스대사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EU가 더 이상 유럽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없고, 공통의 국방예산과 새로운 안보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27] 더 나아가 그는 2018년 11

PR/CP(2018) 091, July 10, 2018 (2018).

24) NATO 2020, *The Secretary General's Annual Report 2019*, https://www.nato.int/nato_static_fl2014/assets/pdf/2020/3/pdf_publications/sgar19-en.pdf, p.39.

25) Anthony H. Cordesman, *NATO "Burden Sharing": The Need for Strategy and Force Plans, Not Meaningless Percentage Goals*, CSIS, 5th Revision, August 14, 2018 (2018).

26) 매일경제, "마크롱의 '강한 프랑스' 국방예산에 400조 투입," 2018년 2월 9일,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18&no=95556 (검색일: 2023. 10. 12).

27) VOA, "마크롱 "EU, 더이상 미국에 안보 의존할 수 없어,"2018년 8월 28일,

월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을 제의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미국을 배제한 채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군 창설을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직후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9개 NATO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EU 차원의 군대 창설 방안을 논의하였고, NATO 비회원국인 핀란드도 동참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러시아와 중국, 경우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유럽군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일격을 가함으로써 그와의 대립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28]

2020년으로 들어서자 마크롱 대통령은 2월 제56차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MSC 2020)에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여 유럽국가들의 군사력 강화가 NATO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유럽이 '범대서양 정책' 보다는 러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와 같은 이웃 국가들과 함께 '유럽정책'(European Policy)을 이끌고, '유럽전략'(European Strategy) 개발과 '강력한 유럽군' 창설을 주장하게 된다.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 중 유일한 핵 보유국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려질 수 있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되는 행보를 지속 해 온 것이다.[29] 더군다나 오랫동안 NATO의 유럽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고 불평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6월 초 독일 주둔 미군 중 3만5,000명 가운데 9,500명을 철수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내 특히 독일 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새로운 갈등 국면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트럼프

---

https://www.voakorea.com/a/4547180.html (검색일: 2023. 11. 3).

28) 경향신문, "미국과 동맹 이완·러시아 위협 증폭...나토'미래설계 고민," 2019년 4월 2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22139005&code=970100#csidxc408035ab8d5bbfa9e1f6cfdcbbf8f8 (검색일: 2019. 5. 19).

29) Élysée, "Conférence sur la sécurité de Munich : faire revivre l'Europe comme une puissance politique stratégique,"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20/02/15/conference-sur-la-securite-de-munich-faire-revivre-leurope-comme-une-puissance-politique-strategique (검색일: 2021. 10. 1).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간의 갈등 관계에 독일이 가세하는 모양을 띄게 되었다.[30]

2. 마크롱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후 '대서양주의' 국가인 영국이 EU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EU가 특히 냉전 종식 이후부터 추구해 온 '전략적 자율성'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았으며, 전략적 자율성은 전형적인 골리즘적 시각에서 볼 때 유럽에서 프랑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전략적 자율성은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유럽의 '안보방위정체성'(ESDI: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Identity)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산물이다. 냉전 종식 후 EU 안보축의 강화에 따라 EU는 NATO와 함께 1996년 7월에 이루어진 베를린합의를 통해 EU 내에서 '안보방위정체성'(ESDI)을 정립할 것을 우선 조율하였다. 이후 EU는 1999년에 수립된 유럽안보방위정책(ESDP)과 이를 보완하여 2009년 리스본 조약에서 채택된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2010년 3월에 제시된 EU 연차보고서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31]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유럽의 안보를 유럽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유럽주의' 안보 인식을 바탕으로 함에 따라 유럽 안보의 '유럽주의화'를 가속화하고 유럽주의 국가에 속하는 프랑스와 독일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내부에서는 유럽 안보를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지켜야 한다는 영국 중심의 '대서양주의' 시각과 유럽안보를 유럽인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야 한다는 프랑스 중심의 '유럽주의' 시각이 대립하여 왔는 바, 유럽안보 구축을 놓고 EU에서의 이러한 입장 차

30) BBC News, June 16, 2020,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3058985 (검색일: 2020. 7. 3).

31) Barbara Lippert, Nicolai von Ondarza and Volker Perthes(eds.), "European Strategic Autonomy: Actors, Issues, Conflicts of Interests," *SWP Research Paper,* No.4 (March 2019) 참고.

이가 2009년 프랑스의 NATO 복귀 이후 NATO 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32] 이 같은 대립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NATO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인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 및 영국의 브렉시트와 맞물려 유럽에서의 프랑스의 입지 강화가 마크롱 대통령의 드골주의 노선 추구에 따라 더욱 가시화 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2017년 9월 엘리제궁 발표를 통하여[33] 특히 '민주적이고 주권을 갖는 단일한 유럽'(une Europe souveraine, unie, démocratique)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방위분야에서 유럽이 실제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개입능력 향상과 공동의 방위비 출연, 공동의 독트린에 기반을 두어 운영되는 통합군을 창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공동방위비 운영 방안 마련과 항구적 협력 기구를 만듦으로써 통합 유럽군이 주도권을 갖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유럽정보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유럽인들을 지킬 수 있는 공동의 통합군을 갖춤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유럽 안보가 보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마크롱 대통령이 강조하는 유럽의 방위능력 강화는 결국 유럽이 미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청한 NATO의 유럽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과 관련하여 유럽 관점에서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마크롱 대통령 집권 후 나온 프랑스정부의 '2017 국방과 국가안보 전략문서'(Revue stratégiqu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2017)에서는 유럽이 위협과

32) Union-IHEDN, *Pour l'autonomie stratégique de la Franc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8), pp.68-69.

33) Élysée, "Initiative pour l'Europe - Discours d'Emmanuel Macron pour une Europe souveraine, unie, démocratique,"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17/09/26/initiative-pour-l-europe-discours-d-emmanuel-macron-pour-une-europe-souveraine-unie-democratique (검색일: 2023. 03. 02).

도전에 직면하여 합당한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프랑스도 이에 합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략적 자율성은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작전과 기술, 산업적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34]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9월에 행해진 소르본느대학교 연설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후 이의 실현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 갔다. 2017년 12월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주도적으로 EU의 '상설안보방위협력체'(PESCO)를 출범시킨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PESCO에 참여하는 11개국 군대를 프랑스의 군사 퍼레이드에 초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EU의 안보·방위를 위한 협력체 출범이 유럽의 전략성 자율성을 높일 것임을 어필하였다. PESCO는 구성 과정에서 NATO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를 출범시킴으로써 안보·방위 분야에서의 통합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협력체에 영국을 포함하여 덴마크, 몰타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특히 영국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편으로 2019년 10월 트럼프행정부의 시리아 철군 결정 이후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하게 되자 그는 'NATO의 뇌사'(brain death of NATO)를 언급하며 이를 비난하면서 EU의 독자 방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는데, 유럽질서 재편 과정에서 드골주의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프랑스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려 온 마크롱 대통령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EU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한 Damen의 분석에 의하면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초기부터 EU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즉,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프랑스가 EU를 드골주의 이념 하에 이끎으로써 유럽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반면 대서양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유럽 내에서 드골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정책에 반대하는 기류를 읽을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5]

---

34) République Française, "Revue stratégiqu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2017,"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7), p.56.

3. 대서양동맹의 갈등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 11월 6일 '유럽 1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격적으로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 제의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한편 유럽이 "진정한 유럽의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유럽을 보호하지 못할 것"라며 유럽군 창설을 전격적으로 제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미-러 간에 체결된 주요 군축 협정으로 '중거리 핵전력 협정'(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파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마크롱 대통령은 피해자가 유럽이며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더욱 유럽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서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대서양 동맹의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냈다.[36]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간의 NATO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형평성 논쟁은 각국의 국방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37]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트럼프의 집권 이후 이러한 논쟁이 더욱 거세졌다. 이 같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인한 대서양동맹의 균열 조짐을 마크롱 대통령은 십분 활용하였다. 그는 2018년 11월 10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NATO 방위비를 유럽이 더 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NATO 분담금을 더 많이 감당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유럽 독자군 창설 제안도 같은 맥락인 점을 들었고, 유럽 방위정책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유럽통합군 창설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한 바 있다. 사실 유럽통합군 창설에 관한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프랑스에서 나왔다. 1950년대에 드골 대

35) Mario Damen, "EU strategic autonomy 2013-2023: From concept to capacity," *European Parliament Briefing*, EU Strategic Autonomy Monitor (July 2022), p.2.

36) 매일경제, "막 내린 트럼프-마크롱 브로맨스...유럽軍 놓고 정면충돌," 2018년 11월 11일, https://www.mk.co.kr/news/world/8553440 (검색일: 2023. 10. 12).

37) 고상두, 「트럼프 등장 이후 나토 동맹의 비용분담 갈등과 동맹의 재조정 전망」,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1호 (2018), 98쪽.

통령은 이를 창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유럽 집단안보를 위해 NATO에 참가하여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것을 더 선호한 것이다.[38] 프랑스는 드골이 NATO를 탈퇴한지 43년 만인 2009년에 NATO 지휘체계로 복귀하였다. 하지만 드골의 이념적 계승자로 자처하는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EU 중심의 유럽통합군 창설을 제의함으로써 대서양 동맹 내에서의 갈등을 부추긴 형국이 되었고, 드골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프랑스 대외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 주게 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EU 차원의 유럽통합군 창설에 대해 독일의 메르켈(Merkel) 총리 가 '실질적인 유럽군'(a real European Army)을 창설이 필요하다고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대로 유럽군 창설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대서양 동맹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동맹국가들 간의 갈등을 마크롱 대통령이 더욱 증폭시켰다는 점은 불식시킬 수 없다. NATO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2% 국방비 책정이라는 목표도 채우지 못하는 유럽 국가들이 유럽군을 위해 국방비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과 미국의 핵우산에서 유럽이 빠져나올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프랑스가 러시아에 대항하여 이를 감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39]는 점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NATO 보유 핵전력으로 미국이 유럽 5개 국가(영국은 제외)의 6개 공군기지에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B61 중력탄을 150~240기 보유하고, 영국의 경우 핵잠수함 탑재용 Trident 핵탄두를 225기 보유하고 있다.[40] 프랑스가 [표-2]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전투

38) New York Times, "Merkel Joins Macron in Calling for a European Army 'One Day'," November 13, 2018, https://www.nytimes.com/2018/11/13/world/europe/merkel-macron-european-army.html (검색일: 2023. 10. 12).

39) 경향신문, "미국과 동맹 이완·러시아 위협 증폭...나토'미래설계 고민".

40) 2012년 5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제25차 NATO 정상회담에서 '억지와 방어태세 재검토'(DDPR)을 채택하여 NATO는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의 수단으로 유럽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미국의 전략핵무기뿐만 아니라 영국과 2009년 3월 NATO에 복귀한 프랑스의 독자적인 전략핵무기도 포함될 것임을 밝혔다: NATO, "Deterrence and Defence Posture Review," May 20, 2012, https://www.nato.int/cps/en/SID-140D258B-1322853/natolive/official_texts_87597.htm (검색일: 2013. 3. 2).

기 탑재 핵미사일 50기와 잠수함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240기 그리고 여분의 핵탄두 10기를 포함하여 총 300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프랑스가 미국과 견주는 러시아의 핵 무장력과 맞설 수 없는 것이다.[41]

[표-2] 프랑스의 핵전력(2019년 기준)

Weapon System	No.	Year operational	Range (km)[a]	Warheads x yield	Warhead Type	Warheads
Land-based aircraft[b]						
Rafale BF3/ASMPA	40	2010[c]	2,000	1 x up to 300 kt	TNA	40
Carrier-based aircraft						
Rafale MF3/ASMPA	10	2011	2,000	1 x up to 300 kt	TNA	10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M51.1	32	2010	9,000+	4–6 x 100 kt MIRV	TN75	160
M51.2	16	2017	9,000+	4–6 x 100 kt MIRV[d]	TNO	80
Total	98					**300**[e]

출처: Kristensen and Korda, "French nuclear forces, 2019," p.52.

2018년 10월 24일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는데 그는 다자주의의 가치가 훼손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말아달라며 호소하였고, 이란 제재에 대해서도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과 이루어낸 2015년 핵 합의에 따라 대화와 다자주의접근을 강조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EU 회원국들과 함께 프랑스 또한 미국의 이란 2차 제재 참여를 거부하였다.[42] 더 나아가 마크롱 대통령은 2020년 2월 제56차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이 러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와 같은 가까운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범대서양정책이 아니라 유럽정책을 구사하여야 하고, 유럽전략 개발과 아울러 '강력한 유럽군' 창설을 재차 강조하는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43]

대서양 동맹 내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EU 회원국 정상 중 제일 먼저 전화로 회담을 하였는데,

41) Hans M. Kristensen and Matt Korda, "French nuclear forces, 2019,"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75, No.1 (2019). pp.51-55.

42) 매일경제, "막 내린 트럼프-마크롱 브로맨스...유럽軍 놓고 정면충돌".

43) Élysée, "Conférence sur la sécurité de Munich : faire revivre l'Europe comme une puissance politique stratégique".

양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우호 관계를 강조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와의 타협을 모색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44] 하지만 2021년 9월 미국과 영국, 호주 3국간 삼각동맹인 AUKUS(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의 출범 과정에서 프랑스와 사전 조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호주가 프랑스와 맺은 잠수함 계약을 파기함으로써[45] 마크롱 대통령이 이에 격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일 마스(Heiko Maas) 외무장관은 미국과 호주 간 핵잠수함 계약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면서 삼국 간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인 AUKUS 체결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동맹국들에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sobering)' 사건임을 지적하며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하였다.[46] 이러한 가운데 9월 22일로 예정됐던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4개국 간의 '대서양 횡단 Quad' 장관급 4자회담이 돌연 취소되었고, 프랑스는 EU가 호주와 추진하고 있는 FTA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AUKUS 출범 후 파장이 커짐으로써 여전히 대외정책에서 프랑스와 미국과 거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대서양동맹 복원 과정에서도 양국 간 대립이 해소되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게 되어 마크롱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NATO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커진 가운데 대서양동맹과 긴장 관계에 있는 프랑스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났다. 즉, 대서양동맹 내에서 프랑스와 미국 간 협력이

---

44) France 24, "France's Macron congratulates Biden in first phone call to US president-elect," November 10, 2020, https://www.france24.com/en/diplomacy/20201110-france-s-macron-congratulates-biden-in-first-phone-call-to-us-president-elect (검색일: 2021. 9. 28).

45) 동아일보, "'오커스'에 뿔난 佛, EU 등에 업고 보복 나서... 美-유럽 균열," 2021년 9월 23일, https://www.donga.com/news/ Inter/article/all/20210922/ 109354139/1 (검색일: 2021. 10. 2). 프랑스의 대응 관련 Bruno Tertrais and Michel Duclos, "After AUKUS: How Could France Reboot Its Indo-Pacific Strategy?" *Institut Montaigne*, October 4, 2021, https://www.institutmontaigne.org/en/blog/after-aukus-how-could-france-reboot-its-indo-pacific-strategy (검색일: 2021. 10. 10).

46) DW, "German foreign minister calls for EU-US cooperation," September 23, 2021, https://www.dw.com/en/german-foreign-minister-urges-eu-us-cooperation-in-indo-pacific/a-59287758 (검색일: 2021. 10. 5).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이 푸틴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2월 7일 서방국가 지도자 중에서 유일하게 푸틴과 직접 통화하여 회담을 진행하였는데, 러시아가 즉시 군사작전을 멈출 것을 요청함으로써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전통적인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이 같이 러-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하에 푸틴 대통령이 프랑스가 일정부분 NATO와 대결 국면에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대서양동맹 내 갈등에 프랑스가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러-우크라이나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NATO의 역할이 중요해 질 수 있음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락된 미국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대서양 동맹 복원에 적극적인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골리즘의 이념적 계승자로서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이 이끌어 온 대외정책에 종종 드골주의 접근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드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랑스 제5공화국 역대 대통령들이 유지해 온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자국의 대외정책을 추구하였으며, EU를 통해서도 이러한 접근을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EU가 외교, 안보 및 방위 분야에서 더욱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프랑스의 대외정책에서 골리즘 적용시기를 드골 대통령과 골리즘의 형성기, 드골주의자인 뽕삐두 대통령과 좌파 드골주의자로서 미테랑 대통령시기, 신골리스트로 불리는 시락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시기 그리고 '드골의 이념적 계승자'

임을 내세우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 집권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마크롱 대통령의 드골주의 적용을 특히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프랑스와 미국 간의 갈등이 고조된 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프랑스 대외정책 집행과정을 살펴볼 때 신드골주의를 적용시킨 시락 대통령에서부터 중도파 마크롱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유럽질서에서 꽤 많은 변동이 있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분석 결과 2017년에 집권한 마크롱이 중도정당을 이끌었지만 이념적 드골주의자임을 자처하며 프랑스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하였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과의 대립을 통해 신유럽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강화된 프랑스의 입지를 구축하는 등 대외정책에 있어 전통적인 프랑스의 드골주의를 적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적 색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대외정책수행 과정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골리즘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왔고, 이는 중도정당을 이끌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마크롱의 경우 변화된 프랑스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프랑스에서 전례 없이 중도주의를 적극적으로 표방하여 인기를 누림으로써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어 프랑스의 국내외 정치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우파적인 정책을 추구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좌파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외정책수행에 있어서는 드골의 이념적 계승자로서 '골로-미테랑주의' 접근 방식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을 유럽에서 프랑스의 지위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았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대서양동맹의 균열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신유럽질서 수립을 통한 프랑스의 위상 확대 등 골리즘에 입각한 전형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하였음을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물론, 드골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는 EU 내에서 회원국들로 부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일부 회원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EU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접

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눈에 띄게 행보하는 것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좋지 않은 시각이 있음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을 이끌고 있는 프랑스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정치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외정책에 있어서 골리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크롱 대통령을 이은 후대 대통령 또한 이러한 전례를 따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이 드골주의를 대외정책에 어떻게 녹여내면서 개인 수준과 대내적 요인, 대외적 요인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적용해 나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미국과 동맹 이완·러시아 위협 증폭…나토‘미래설계 고민,” 2019년 4월 2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22139005&code=970100#csidxc408035ab8d5bbfa9e1f6cfdcbbf8f8 (검색일: 2019. 5. 19).

고상두, 「트럼프 등장 이후 나토 동맹의 비용분담 갈등과 동맹의 재조정 전망」,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1호 (2018).

동아일보, “‘오커스’에 뿔난 佛, EU 등에 업고 보복 나서… 美-유럽 균열,” 2021년 9월 23일,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922/109354139/1 (검색일: 2021. 10. 2).

매일경제, “마크롱의 '강한 프랑스' 국방예산에 400조 투입,” 2018년 2월 9일,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18&no=95556 (검색일: 2023. 10. 12).

매일경제, “막 내린 트럼프-마크롱 브로맨스…유럽軍 놓고 정면충돌,” 2018년 11월 11일, https://www.mk.co.kr/news/world/8553440 (검색일: 2023. 10. 12).

이수형, 「트럼프시대 나토의 위기와 유럽연합과의 갈등관계 분석」, 『INSS 전략보고』, 75호 (2020).

이승근, 「프랑스의 대 EU 안보정책에 대한 고찰: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수립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8집 (2004).

전혜원, 「영국의 EU 탈퇴와 유럽안보의 과제」, 『정책연구시리즈』, 2018-1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황영주·손무정, 「국제주의와 대서양주의의 조화 또는 갈등: 영국 노동당정부의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에 대한 접근(1998~2003)」, 『국제정치연구』, 제9집 1호 (2006).

VOA, "마크롱 “EU, 더이상 미국에 안보 의존할 수 없어,” 2018년 8월 28일, https://www. voakorea. com/a/4547180.html (검색일: 2023. 11. 3).

BBC, "France's Macron joins presidential race to 'unblock France'," November 16, 2016,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37994372 (검색일: 2023. 3. 3).

BBC News, June 16, 2020,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3058985 (검색일: 2020. 7. 3).

Berdah, Arthur, *Emmanuel Macron, Vérités et légendes* (PERRIN, 2022).

Clarke, Bu Hilary, “Macron sets out grand plan to relaunch ‘weak and slow’ European Union," *CNN*, September 26, 2017, https://edition.cnn.com/2017/09/26/europe/macron-european-union-sorbonne-speech/index.html (검색일: 2023. 02. 17).

Cordesman, Anthony H., *NATO “Burden Sharing”: The Need for Strategy and Force Plans, Not Meaningless Percentage Goals*, CSIS, 5th Revision, August 14, 2018 (2018).

Damen, Mario, “EU strategic autonomy 2013-2023: From concept to capacity,” *European Parliament Briefing*, EU Strategic Autonomy Monitor (July 2022).

Duclos, Michel, "Gaullo-Mitterrandisme contre néo-conservateurs à la française-un vrai-faux débat?" *Institut Montaigne*, August 3, 2017 (2017).

Duclos, Michel, "Tracing French Diplomacy: A Brief History of Macron's Foreign Policy," *Institut Montaigne*, October 12, 2021 (2021).

Dumoulin, André, Raphaël Mathieu et Gordon Sarlet, *La politique européenne de sécurité et de défense(PESD): De l’opératoire à l’identitaire* (Bruylant, 2003).

DW, "German foreign minister calls for EU-US cooperation," September 23, 2021, https://www.dw.com/en/german-foreign-minister-urges-eu-us-cooperation-in-indo-pacific/a-59287758 (검색일: 2021. 10. 5).

Élysée, “Initiative pour l'Europe - Discours d'Emmanuel Macron pour une Europe souveraine, unie, démocratique,”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17/09/26/initiative-pour-l-europe-discours-d-emmanuel-macron-pour-une-europe-souveraine-unie-democratique (검색일: 2023. 03. 02).

Élysée, "Conférence sur la sécurité de Munich : faire revivre l'Europe comme une puissance politique stratégique,"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20/02/15/conference-sur-la-securite-de-munich-faire-revivre-leurope-comme-une-puissance-politique-strategique (검색일: 2021. 10. 1).

European Parliament, "EU strategic autonomy 2013-2023: From concept to capacity," Briefing, *EU Strategic Autonomy Monitor July 2022*,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BRI(2022)733589 (검색일: 2023. 4. 6).

France 24, "France's Macron congratulates Biden in first phone call to US president-elect," November 10, 2020, https://www.france24.com/en/diplomacy/20201110-france-s-macron-congratulates-biden-in-first-phone-call-to-us-president-elect (검색일: 2021. 9. 28).

Giegerich, Bastian and Christian Molling, "The United Kingdom's contribution to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IISS & DGAP* (February 2018).

Kristensen, Hans M. and Matt Korda, "French nuclear forces, 2019,"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75, No.1 (2019).

Lasserre, Isabelle, *Macron, le Disrupteur: la politique étrangère d'un président antisystème* (Edition de l'Oservatoire, 2022).

Le Lab Europe 1, "Finalement, le parti d'Emmanuel Macron est "et de droite, et de gauche"(mais surtout progressiste)," April 21, 2016, https://web.archive.org/web/20160424111150/http://lelab.europe1.fr/emmanuel-macron-refuse-detre-loblige-de-francois-hollande-2726290 (검색일: 2023. 3. 1).

Lippert, Barbara, Nicolai von Ondarza and Volker Perthes(eds.), "European Strategic Autonomy: Actors, Issues, Conflicts of Interests," *SWP Research Paper,* 4 (March 2019).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Etrangère, “Franco-German Treaty of Aachen,”https://www.diplomatie.gouv.fr/en/country-files/germany/france-and-germany/franco-german-treaty-of-aachen/ (검색일: 2020. 5. 4).

NATO, “Deterrence and Defence Posture Review,” May 20, 2012, https://www.nato.int/cps/en/SID-140D258B-1322853/natolive/official_texts_87597.htm (검색일: 2013. 3. 2).

NATO, "Defense Expenditure of NATO Countries(2011-2018)," Press Release, PR/CP (2018)091, July 10, 2018 (2018).

NATO 2020, *The Secretary General's Annual Report 2019*, https://www.nato.int/nato_static_fl2014/assets/pdf/2020/3/pdf_publications/sgar19-en.pdf.

New York Times, “Merkel Joins Macron in Calling for a European Army ‘One Day’,” November 13, 2018, https://www.nytimes.com/2018/11/13/world/europe/merkel-macron-european-army.html (검색일: 2023. 10. 12).

Politico, “The other loser in the French elections,” https://www.politico.com/news/2020/06/30/france-marine-le-pen-macron-346480 (검색일: 2023. 4. 5).

République Française, “Revue stratégiqu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2017,”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7).

Schapper, Pauline, "La politique européene de la France et le Brexit(2017-2019)," Georges-Henri Soutou, *L'action extérieure de la France(Sous la direction de)* (Puf, 2020).

Tertrais, Bruno and Michel Duclos, "After AUKUS: How Could France Reboot Its Indo-Pacific Strategy?" Institut Montaigne, October 4, 2021, https://www.institutmontaigne.org/en/blog/after-aukus-how-could-france-reboot-its-indo-pacific-strategy (검색일: 2021. 10. 10).

Union-IHEDN, Pour l’autonomie stratégique de la Franc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8).

Visot, Marie, “La Loi Macron ne devrait créer que peu de croissance,” https://www.lefigaro.fr/conjoncture/2015/09/18/20002-20150918ARTFIG00250-la-loi-macronne-devrait-creer-que-peu-de-croissance.php (검색일: 2023. 2. 10).

Washington Post, “The Security and Defense Agenda (As delivered by Secretary of Defense Robert Gates),” Brussels, Belgium, June 10, 2011,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the-security-and-defense-agenda-as-delivered-by-secretary-of-defense-robert-gates-brussels-belgium-june-10-2011/2011/06/10/AGqlZhOH_story.html (검색일: 2020. 7. 5).

〈Abstract〉

Emmanuel Macron's pursuit of Gaullist policies and conflicts within the Transatlantic Alliance

Seung-Keun Lee*

Emmanuel Macron, representing the newly formed party 'En Marche' and advocating for centrist policies, successfully won the presidency in 2017, gaining popularity among the French population. After taking office, President Macron implemented economically right-leaning policies while also bolstering welfare programs as part of an expansion of left-leaning social initiatives. In terms of foreign policy, he positioned himself as an ideological successor to President de Gaulle, who led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He strategically utilized the transatlantic alliance's division caused by President Trump in executing his foreign policy, aiming to establish a 'New European Order' with fellow Europeans. Additionally, after the UK's Brexit referendum, he worked towards expanding France's influence in Europe, following the traditional Gaullist path that lies at the core of French right-wing ideology.

This study analyzes how President Macron effectively demonstrated the strengthening of France's position,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Gaullism, amid the shifting dynamics of the European order. This was achieved through the deepening of European integration, the collaborative construction of Europe by Europeans, the enhancement of strategic autonomy, and the prioritization of security within the EU over NATO. Ultimately, President Macron incorporated a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eimyung University

significant portion of the Gaullist approach into his foreign policy, aiming for an independent and self-reliant European policy for France. He sought to implement this Gaullist approach through the EU, working to empower France to make decisions and take action independently in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illustrates his efforts to enable the EU to operate autonomously in matters of diplomacy, security, and defense.

Key words: Emmanuel Macron, Brexit, France, Transatlantic Alliance, Strategic Autonomy, European Union(EU), NATO, Gaullism

원고접수일: 2023. 10. 15.
심사마감일: 2023. 11. 10.
게재확정일: 2023. 11. 11.